



[강추강추] 소금과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 떨면서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다시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쏟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
지구 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달는 순간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터져 죽는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 작용으로
지렁이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말이 없는가요...?



"소금물로 가글하고
소금으로 양치질하고"
사용한 칫솔을
소금물에 담가 놓았다가
다시 사용하라는 것도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시키기
위험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소금은 어둡고 습한 곳에

수억 년을 놓아두어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

소금은 그만큼
바이러스와 세균에는
영원한 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무조건 소금을
많이 먹고 체내 염도를
0.9%만 유지시켜 주면

지구 상에 어떠한
바이러스도 범접을
못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몸의
염분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인체와 소금
이 내용을
혼자만 알지 말고
많은 지인들께 전달하면

사람을 살려
복 짓는 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에 좋은 글 중에서 ?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